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소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무서운 시간(時間) (1941년 2월 7일)

# 한 권으로 만나는 민족 시인 윤동주

권영민 교수 '윤동주 전집' 엮어  
 탄생 100돌 맞아 모든작품 수록  
 정지용·김남조 등 해설·논문도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고!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무명 운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시인 정지용은 1948년 1월 윤동주(1917~1945)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에 쓴 글이다. 처음 31편이던 윤동주의 작품은 시집이 증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현재 100편 안팎이 됐다. 알려진 대로 올해는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다. 그의 탄생 100돌을 맞아 모든 작품을 수록한 전집이 새롭게 출간됐다.

책은 지난 1995년 2권으로 나눠 발간된 전집을 한데 묶고 보강한 것이다. 이번 전집에는 해설 자료가 덧붙여져 일반 독자들로부터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한 권으로 만나는 민족 시인 윤동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또한 전집이 남다른 의미를 주는 것은 윤동주의 모든 문학작품이 꼼꼼한 검수와 정을 거쳐 온전한 형태로 게재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보

가 발표된 시 97편과 산문 4편이 수록돼 있다. 산문 4편은 '화원(花園)에 꽃이 피다', '종시(終始)', '별뿔 떨어질 데', '달을 쏘다' 등이다. 책은 지난 1995년 2권으로 나눠 발간된 전집을 한데 묶고 보강한 것이다. 이번 전집에는 해설 자료가 덧붙여져 일반 독자들로부터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한 권으로 만나는 민족 시인 윤동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또한 '문학사상' 자료 연구실에서 엮은 '일제 암흑기의 찬란한 빛'도 담겨 있어 자료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높다. 책에는 또한 윤동주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연구한 논문들도 수록돼 있다. 김

남조·김용직·김윤식·오세영·이여령 등 국내 저명한 시인과 학자들의 논문은 윤동주의 문학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록으로 첨부된 자료에는 기존의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윤동주에 내리친 판결문 전문과, 입수 경위는 당시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윤동주와 관련한 단행본 및 논문 목록도 게재돼 있어 윤동주 연구를 필요로 하는 학자나 대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윤동주의 가계도와 연보, 작품 연보 또한 잘 정리돼 있어 그의 삶과 시세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권영민 교수는 “윤동주의 시가 식민지 시대의 고통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책이 윤동주의 삶과 그의 고결한 시정신을 함께 더듬어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담양 달빛 아래 '국악 로맨스'

20일 담양 가사문학관  
 광주문화재단 '풍류달빛공연'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담양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전통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풍류달빛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

연은 '달, 별, 바람의 소리'를 주제로 전통 판소리와 함께 국악 뮤지컬·퓨전국악 연주곡들을 선보인다. 첫 번째 무대는 국악 뮤지컬집단 타루 단원인 소리꾼 조엘라가 '춘향가' 중 '이별가'로 공연을 연다. 이어서 창작 국악 뮤지컬 '운현궁 로맨스', 등에서 선보인 젊은 감각의 유쾌한 국악 창작곡들을 뮤지컬 배우 원성준 씨가 출연해 함께 공연한다.



한충은 재즈·즉흥음악·월드뮤직을 섭렵한 젊은 국악 연주자 한충은 씨와 연주단체 포레스트는 퓨전 국악 연주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 사회는 국악인 김나니씨가 맡

아 KBS2 '1박2일'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창작 판소리 '난감하네' 공연도 선보인다. 올해 '풍류달빛공연'은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를 통해 전국과 지역에 방송된다. 20일 첫 공연은 6월 3일 오전 5시 전국, 6월 11·18일 오전 8시40분 지역에 방송된다. 풍류남도나들이 상설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식영정·환백당·취가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선비복 체험과 다례체험, 서화체험 등 모든 체험행사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바로 체험 가능하다. 문의 062-232-21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동남아 춤사위, 무대가 후끈

문화전당 20~21일 인니·21일 스리랑카 테마 공연

인도네시아의 현대무용과 스리랑카의 전통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일(오후 7시 30분), 21일(오후 5시) 인도네시아 현대무용 '메가 먼둥(Mega Mendung. '먹구름'을 극장1에서 선보인다. '메가 먼둥'은 ACC가 제작하고 아시아의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현대무용가 피트리 서타닝사가 안무 기획을 맡았다. 인도네시아어로 '초대형 먹구름'을 뜻하는 '메가 먼둥'은 구름의 움직임과 색깔의 변화를 음악, 안무, 무대, 의상으로 표현한 현대 무용 작품이다. '메가 먼둥'은 안무가 '피트리 서타닝사'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구름이 당신을 싣고 하늘로 두둥실 오르면 어떠할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하여 '치레본 바티(Cirebonese batik, 전통 천 문양 공예)'를 활용하여 모티브인 '먹구름'과 다시 결합한다. 흰 바탕색에 서로 다른 어두운 파란 색조로 어우러진 무대는 음악, 안무, 세트 디자인, 의상들과 함께 구름이 된 일곱 명의 댄서들과 조화를 이룬다. ACC에서 2015년 사진 제작돼 인도

네시아 '살리하라 국제 공연예술 페스티벌'에서 먼저 공연되었고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석 2만원. 한국-스리랑카 수교 기념 40주년 기념, 전통 공연 '스리랑카, 춤과 음악의 보물섬'은 21일 오후 4시 극장2에서 선보인다. 스리랑카 최고의 안무가이자 타악 연주자인 라비반드 비디파티와 스리랑카 전통 예술단이 선보이는 공연이다. 뛰어난 북 연주자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라비반드 비디파티가 안무를 맡았다. 이들은 스리랑카의 역사, 종교, 신화, 예술을 바탕으로 전통 북과 춤을 통해 신비하고도 강렬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렬한 북소리와 다양한 전통악기가 만들어 내는 음악과 무용수들의 날렵하고 박력 넘치는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는 '스와스티' 등 총 10편의 춤과 음악을 선보인다. 거장 라비반드가 현대의 맥스발라를 각색한 '맥스발'도 포함돼 있다. 전석 1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리랑카 전통춤 'Naga Raksha'.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 "시와 놀자" 20일 어린이 문학잔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문학 잔치가 열린다. 한림문학작가협회와 (재)한림문학재단은 20일(오후 1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상무역 공연장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과 문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어린이 문학잔치를 개최한다. 전시 기간은 23일까지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시화전과 동시낭송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시화전은 각 학교 초등학생들로부터 150여 점을 공모한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4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를 마친 시화작품은 참여 학생의 소속 학교로 보내져 교내서 자체 전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낭송회 또한 예심을 통과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확한 발음과 발성, 시적 감동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박형철 한림문학작가협회장은 "이번 행사로 학원과 게임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이 동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10-3627-1810.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